

종교인 과세 '도마 위' ... 가시화 되나

한국 종교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 '종교인 과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근로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법과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부 소득세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지만 입법 예고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종교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화된 종교인 과세는 당시 논의가 그다지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5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다시 불씨를 당겼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찬성'에 가깝다. 실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범안)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1년 조사보다 20% 이상 확대된 수치다.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인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정부 역시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

교 시설은 9만여 소이며 성직자 수는 36만 5000명에 이른다. 일부 유명 목사들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많지 않다.
기획부 "내부 논의·검토 중" 세수 효과는 높지 않을 듯
불교계 "과세 거부 이유 없다" 종교들과 신중한 논의 필요
세수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수효과가 아닌 부대비용만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

은 과세는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열린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의 세미나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범용 스님은 "종교가 스스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종교인과 신자들에게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는 종교인들의 소득 신고를 통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 >대형 교회 및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세 부과를 위한 '종교인 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가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숙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스님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봐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종교가 시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스님들의 소득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앙총무기관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1월 24일 열린 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세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의 다른 관계자는 "교구본사와 일부 도심 사찰들을 제외하면 복잡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찰이 거의 없다"며 "정부도 '여론몰이'식 제도 시행이 아닌 종교계와의 신중한 논의와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前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범하스님 원적 7일 법랍 53세... 법구 동국대에 기증

불교 문화재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前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범하스님(법명 종사가 1월 7일 원적했다. 법랍 53세, 세수 66세.
빈소는 통도사 선선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던 통도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1월 9일 오후 2시에 엄수됐다.
장의위원장인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영축산의 기상처럼 의연하고 인자하신 스님의 모습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 허전하고 비통하다"며 "평생의 원력으로 불교성보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육신마저도 보시하여 중생들에게 위법망구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추모했다.
문도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스님의 생전 유지를 따르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스님의 법구는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기증됐다.
범하 스님은 법인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사미계를 1972년 구족계를 주지했다. 이후 영축총림 통도사 등에서 수행했으며 송남원, 대성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초대 관장과 2대 관장을 지냈다.
또한 성보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해 전국 사찰의 불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시리즈를 완간하는 등 불교미술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스님은 생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무련장, 육관문화훈장, 조계종 포교대상 문화포교부문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범하 스님의 49재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이 추모로 31면



1월 7일 임직한 前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의 영결식이 9일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4·5급 승가고시 확정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가 올해 4급, 5급 승가고시 일정을 공고했다. 4급 승가고시는 오는 3월 9일 중앙승가대에서, 5급 승가고시는 3월 14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교육원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직지사에서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2012년 3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교육원에 행사등록을 한 행자다.
신종일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이탈리아서 고려불화 발견

국립중앙박물관, 해당 박물관 전수조사서

국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고려 불화 1점이 이탈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월 9일 유럽에서 국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고려불화 1점을 새롭게 확인했다.
부처님을 그린 고려불화는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한국 미술의 으뜸으로 꼽혀 고려청자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 160여점에 달하지만 대부분 해외에 유출돼 국내에는 30점 정도밖에 없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Museo Nazionale d'Arte Orientale)에 파견된 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소장유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고려불화는 아미타불이 시선을 아래로 향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서방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그렸다. '아미타불이 와서 맞이하는 그림'이란 의미로 아미타내영도

(阿彌陀來迎圖)라고 불린다.
이 작품은 광배 일부분에 약간의 보수를 가미했으나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아미타불이 입고 있는 대의(大衣)의 붉은 색감과 찬란한 금빛의 연화초주머니가 잘 살아 있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함께 조사한 유물 가운데 삼국시대 7세기의 반가사유상 1점도 확인됐다. 이 반가사유상은 현존 크기 8cm남짓의 소형으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같은 계열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온화한 얼굴 표정과 이목구비의 표현, 당당한 상반신과 옷주름 표현 등에서 삼국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한편,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은 지난 1957년에 개관한 동양 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2010년에 한국실을 개설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관 측과 협의회 고려불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전시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재

오는 1월 20일 경국사서

지난해 1월 20일 원적에 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가산당 지관대종사 문도회는 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경국사에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한다. 다례제는 '지관 스님과 함께 한 시간은 행복과 화합의 인연이었습니다'는 주제로 열린다.
지관 스님은 당대 최고 율사였던 자운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었으며, 동국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며 한국 금석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또한 스님은 가산문화연구원을 개원하고 한국불교 최초의 불교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전> 집필을 시작해 현재 14권까지 발간됐다.
신종일 기자

923호 INDEX

| | |
|--------------------------------|-----|
| 종합 | 2·3 |
| 조계종, 총림·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제안 | |
| 관음종, 올해 50년사 발간 불기 2557 성도절 행사 | |
| 경주 남산을 오르다 신라인의 탐파신앙 | 12 |
| 연중기획-마음산업 '신행·포교 지도' 바꾼다 | 27 |
| 오피니언 불교계 자살 상담 사례 | 31 |

2013년! 24년 만에 개정증보 발간 24년 만에 발간되는 개정증보판에는 김재웅 법사님의 최근 법문이 수록되었다. 1989년 첫 발간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마음 닦는 이들의 수행지침서가 되다. 1999년 미국 출간 영문판 『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가 해외 불교 학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미국 전체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9위에 오르다.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은 김재웅 법사님이 그의 스승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엮은 책으로, 마음을 향하기는 여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 질병, 기근, 그리고 결국 죽음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내면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런 선의(善意)를 추구하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소중한 조언을 얻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 티베트 승왕 14대 달라이 라마 His Holiness the 14th Dalai Lama

이 책에 담긴 법문들은 구체적이고 현실 지향적이며, 수행자와 일반 불자들에게 사업 경영,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원만한 인간 관계 등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점에서 마음을 사로잡는다. 업(業)의 작용에 대한 폭넓은 설명, 특히 어떤 특정한 행동이 그 과보로 다음 생애 어떤 몫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에서는 많은 정신적 감화를 받게 된다. 가르침의 방식이 혁신적이며 문체는 유려하다.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는 책이다.

— 찰스 물러, 일본 동경대학 교수 Charles Muller, Tokyo University

이 책은 영어권 세계에 점차 알려지고 있는 한국 불교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교훈적이고 흥미로운 일화와 자신의 스승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금강경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자는 독자들을 궁극적인 지혜와 심오한 자비의 세계로 안내한다.

— 『트라이사이클』 지(誌) Tricycle



개정증보판
김재웅 지음
368면 15,000원

개정증보판 닦는 마음 밝은 마음